

## 대한민국 안전 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출범



우리나라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가 출범했다. 소속 정원만 1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 받았다.

정부는 11월 19일 외교부 별관 2층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처'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직원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민간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동안 육상·해상은 물론, 자연재난·사회재난·특수재난 및 안전 업무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분산관리하던 것을 국민안전처가 통합관리하게 된 만큼 국민들이 모든 유형의 재난과 안전사고를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는 믿음을 갖도록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인 안전처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육상(경찰·소방)과 해상(해경)으로 나뉘어 있던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에서 국민안전 업무를 통합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힌 지 198일 만에 출범한 것이다.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둔 것도 우리나라 정부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다. 소속이 국무총리실 산하기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직접 맡아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민안전처의 초대 장관과 차관으로는 각각 박인용 전 합참차장(해사 28기)과 이성호 안행부 2차관(육사 33기)이 정해져 군 출신 수뇌부가 탄생하게 됐다.